



| 글로리아 〈베르니니, 크리스털과 설화석고, 1653,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금주의 성화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은 성 베드로 대성당 제일 안쪽에 자리 잡은 성 베드로 좌 장식의 일부이다. 성령께서 발하시는 광채는 일반적인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니라 포타숨 크리스털 위에 설화석고(줄마노)를 빛이 통과할 정도로 매우 얇게 잘라 붙여 만든 것이다. 12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광채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열두 사도에게 임하신 것을 상징한다.

† 오늘의 전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19-2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겁에 질려 숨어 있던 사도들은 성령께서 임하시자 용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교만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의 빈 곳을 채웁니다.

제1독서 사도 2,1-11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복음 요한 20,19-23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청소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을 전합시다!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 교구 청소년담당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기운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또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안에서 볼 수 있는 기(氣)라는 것은 ‘에너지’,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가 잘 흐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가 막힐 때 사람은 힘이 빠져 즐겁게 일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라 믿었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 닫힌 방!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생동감이나 신선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문이 잠겨 외부와 차단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공간, 기가 막힌 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당신 부활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막힌 굴뚝이 뚫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기가 살아서’ 용감하게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가 막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강림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또한 청소년 주일을 지내며 청소년들의 기를 살리고 그들이 더욱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와 청소년 자살, ‘더불어 살기 의식’ 부족 등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시기야말로 가장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아기 때, 부모가 인내하며 밤낮없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양육자의 역할을 다 했듯이, 유아기 이상으로 부모의 관심어린 양육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어쩌면 청소년기가 유아기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삭막한 현대 사회와 각박한 학교 교육의 현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사목, 참 생명의 기운, 성령을 새롭게 불어넣는 청소년 사목을 위해 교구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 주시길 감히 청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필리 4,4)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27차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기쁨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청년 대회와 모든 결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다음 세계 청년 대회 주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태 28,19 참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기쁨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직한 세관장 자캐오를 방문하셨던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캐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고 루카 성인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루카 19,5-6 참조).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온 삶을 바꾸고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열고 하느님께 속하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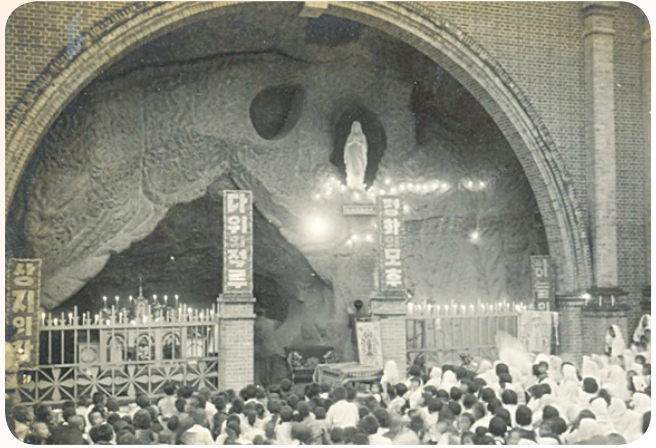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평화와 참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겪는 일들 안에 숨어 계신 그분을 찾으십시오. 자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쁨은 사랑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성령의 두 열매입니다(갈라 5,23 참조). 충실하고 한결같은 선행은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또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키우고, 지금부터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에 그 재능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한층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물질적 성공, 돈을 좇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공동체의 삶 안에서 형제적 친교를 키워 가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나눔과 관심과 배려의 탁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사절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나누어야 합니다. 가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소중한 보화를 찾은 기쁨을 전하십시오.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적인 증인이 되십시오! 고통 받는 이들과 기쁨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가져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기쁨과 다른 이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모 공경 행사의 시작

성모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는 소문이 나자 더 많은 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톨릭 신문에 성모당에서 기도하면 여하튼 들어 주신다는 재미있는 내용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가난한 신자 한 분이 무엇인가 간곡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간절했던지 그의 기도소리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성모님, 아이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라면하나 끓여줄 형편이 못됩니다.



제게는 단돈 만원 한 장도 없답니다. 성모님, 간곡히 비오니 만원이라도 우선 벌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소서...” 그러자 옆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돈 많아 보이는 신자 한분이 얼른 돈 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주며, “자, 여기 있소, 돈 만원. 그러니 제발 성모님께서 그런 사소한데까지 신경 쓰시도록 하지 마세요.”했더랍니다.

처음에는 홀로 와서 기도했지만 점차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기록에 나오는 성모당의 첫 신심행사는 1919년 7월 29일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님들이 순례의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기도할 수가 없었지만, 해방되자마자 성모님 공경 행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모성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던 1949년 5월 29일, 교구의 청소년들이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성모당까지 행렬하고 성모님께 노래와 시와 꽃을 바쳤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 성모 마리아 성년을 선포하시자 최덕홍 주교님의 주례로 대구 시내 6개 본당이 성모당에 모여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드리는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성모당에 모여 기도하는 전통이 점차 발전하여, 1973년 5월부터 ‘성모의 밤’이라는 행사가 성모당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성월 동안 시내에 있는 16개 성당과 7개 액션단체와 수도회가 돌아가면서 ‘성모의 밤’을 지냈는데, 5월 2일 레지오마리아를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8시에 거행되었습니다. 이해 성모의 밤 행사에 12,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고, 현금으로 걷힌 250,690원은 성모당 환경정리비로 사용했습니다. 

■ 금주의 성인 **성 유스티노**



성 유스티노 (6월 1일)

초창기 교회의 순교자이신 유스티노 성인께서는 평생 진리를 찾아 여러 학파를 전전하다가 복음 말씀 안에 참되고 유일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성인께서는 평신도로서 철학 교사라는 신분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셨는데,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토론과 저술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설교하셨으며, 최초의 호교론(복음의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지으셨습니다. 이교도 철학자에 의해 고발된 성인께서는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시고 165년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혼인성사

혼인성사란?

혼인성사는 세례 받은 두 남녀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주님의 강복을 청하는 성사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외에 다른 사랑은 없으므로, 부부간의 사랑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남녀의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주님께 나아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일찍이 카나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에게 기꺼이 강복하시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혼인성사 준비와 혼인 장애

혼인성사는 사제와 증인들 앞에서 두 남녀 교우가 일생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앞에서 하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성사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치

럼 중대한 것이므로, 혼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혼기가 찬 자녀를 둔 교우는 일찍 준비하여 본당신부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성사에 관한 교리도 배워야 하고, 혹시 혼인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혼인 장애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협박, 강탈에 의한 혼인이나 조건부 혼인은 무효입니다.
- 2) 반드시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천주교 예식대로 혼인해야 합니다.
- 3)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4) 이미 혼인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과 또 혼인할 수 없습니다.
- 5) 허원을 한 수도자나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 6) 직계 사촌까지의 근친이나 죽은 배필의 사촌까지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 7) 부부생활에 문제가 되는 성적인 장애가 있으면 혼인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하는 경우 반드시 신부님에게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더라도 한 쪽이 신자가 아니므로 혼인성사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배우자 될 사람을 설득하여 혼인 전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청소년 주일)

- 【입당성가】 493 살아계신 주 성령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체성가】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143 진리의 성령

† 교구 소식



†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 구미직업재활센터 축복식 및 개원식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 최의정 바오로 신부) 개소식이 5월 16일(수) 오전 11시, 구미직업재활센터(원장 : 김상조 대견안드레아 신부) 축복식 및 개원식이 오후 3시에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산자연학교 신관, 기숙사, 경당 개관 축복식

경북 영천에 위치한 산자연학교(교장 : 정홍규 아우구스티노 신부) 신관, 기숙사, 경당 개관 축복식이 5월 15일(화) 오전 11시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로 거행되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교구장 대주교님 동화사 방문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5월 21일(월)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 교구 사무처장 박석재(가롤로) 신부, 대구종교평화회의 천주교 담당 임석환(스테파노) 신부와 함께 동화사를 방문하여 주지 성문스님에게 석가탄신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 금주의 주요 교구 일정

- ▶ 2012년 5월 27일(일) 14:00, 계산주교좌성당 건진
- ▶ 2012년 5월 27일(일)~28일(월) 제37회 교구장기 직장 및 교회 테니스대회 -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 ▶ 2012년 5월 28일(월)~6월1일(금) 교구사제 연례 피정(2차) - 한티 피정의 집
- ▶ 2012년 5월 30일(수) 14:00, 희망원 건진
- ▶ 2012년 6월 3일(일) 11:00, 성동성당 건진

성령님, 저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매달 첫째 일요일 13:00
장소: 대구 이곡동 수녀원
문의: 587-2898 / (010)2570-0939
<http://www.fmmkor.org>
• 성소상담 문의 언제나 가능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6.3(일) 10:00~17:00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
문의: 골롬반성소국, (010)6818-3737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6.3(일) 11:00, 서울성북동본부
문의: (010)8752-3034
kmsvocation@daum.net

성 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모임

기간: 6.9(토) 16:00~10(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32세 이하 미혼 남성

희망기도 만나절 피정

일시: 6.3(일) 13:00~17:30(미사포함)
장소: 달빛골 교육원 (삼성교회 옆)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1592-1

지도: 최봉도 신부(책 지참: 대, 소)
선착순: 80명, 참가비: 1만 원
문의: 이재천 바오로, (010)3532-2879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무료 숙박)

기간: 6.1(금) 18:00~3(일) 15:00
장소: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씨튼 영성의 집 향심기도 피정

소개피정 기간: 6.6(수)~7(목)
11.24(토)~25(일)
향심기도 6박7일 집중 피정 기간:
6.7(목)~13(수)
문의: 씨튼영성의집, (041)733-2992~4

삼성산성지 2박3일 예수성심대피정

일시: 6.8(금) 18:00~10(일) 15:00
강사: 정윤희 (베드로) 신부 외
문의: (010)2389-3332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자: 6.9(토), 다사성당
주제: 예수성심의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
일정: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10:00

찬양미사 (안수) 11:00
면담 및 고해성사 12:00

모집 | 기타

경주영어마을 영어캠프모집

기간: 7.30(월)~8.18(토) 3주간
대상: 초3~중2, 주관: 대구가톨릭대
접수: 6.11(월)~15(금)
인터넷접수: www.gev.ac.kr (선착순)
문의: (054)777-8000

대구가톨릭대 TESOL 6기 모집

설명회: 6.23(토) 15:00, 접수: 23일~
민병철어학원 현장에서 연수와 실습
취업시 가산점부여, 신부님 추천장학
유학시 학점인정 국내서 미국석사취득
문의: 526-0111, <http://tesol.cu.ac.kr>

제주 성이시들 젊음의 집 수련교사 모집 (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64)796-771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미사안내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5월 28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바논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5월 31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6월 2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2일(토) 오전 10시 30분	월배수도원 2층 경당

15년 경력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선나 010-6571-3385
라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야간진료

30년 전통의 전자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들옥돌침대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내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춘호(레오)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내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에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내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 대형전용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병원
늘시원한병원
한미의사의 위대한공로
의학박사 평원장 노성균(이우구스티노)
☑ 체크하세요!
☑ 위내시경 ☑ 항문(치질)수술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www.hangmun.com **959-7175**
위·대장·항문 클리닉·건강검진·내시경·암검진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외과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행사 | 모임

경산성당 60주년 기념 미사

일시: 6.3(일) 11:00, 경산성당

3대리구 성모의 밤

일시: 5.28(월) 19:30~21:30

장소: 월성성당 내 성모동굴

내용: 1부 묵주기도, 2부 성모신심미사

3부 성모님께 드리는 음악회

•개인 돗자리, 대중교통 이용

대구가톨릭 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5.28(월) 20:00

장소: 성모당

가톨릭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일시: 6.3(일) 19:0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내용: 성가곡 및 일반곡

입장권: 1만 원 (현장판매)

교육 | 모집

관덕정 6월 특강

일시: 6.2(토) 16:00

강사: 정호승(프란치스코) 시인

주제: 시인 예수를 생각하다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제32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기간: 6.18(월)~22(금), 교구청 별관

내용: 함께 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안내

대상: 예비자 교리반 혹은 반모임 봉사자

신청방법: 본당사무실, 사목국

마감: 6.10(일) 사목국, 250-3056

관덕정 6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일시: 6.5(화) 10:00~12:00, 월2만원

과정: 요한복음, 1사무엘 (화, 목)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010)2578-5535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6.9~10, 16~17 (토~일)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신청: 5.31(목)까지

문의: 250-3066 / (010)4162-5393

대구가톨릭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 6.4(월)~6.8(금)

모집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프카눔 공부방 학생 모집

일시: 6.9(토) 10:00

장소: 프란치스코눔

대상: 중 1~3년

문의: (070)4266-0045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평신도로서 한국과 중국(대만)

의 상호교류와 중국말, 중국

노래에 관심 있으신 분

(빛잡지 6월호 22쪽 참조)

문의: 최창 이창규, (011)808-8018

채용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요양보호사 모집

조건: 25세 이상(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본,

자격증사본 (2교대, 월 8회 휴무)

문의: 대구가톨릭치매센터, 616-2141~3

시메온의 집, 615-2601

안내

교구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영임(가브리엘라)

이중수, 오연숙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접수: 7월, 8월, 12월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2012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16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74

대구주보 알림광고 게재신청 안내

대구주보 홈페이지에서만 선착순 접수

합니다. 개인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

톨릭교회 단체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52

한일따로식당
지하철 중영로역 하나은행 뒤편
김영일(라자로)
유옥상(도미니카)
☎(053)254-0028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가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대표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053)639-8998
상인점 올플러스 맞은편 밀레 매장 건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유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건원(라파엘)
☎(053)642-7575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성건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호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송월타올
인쇄무료
이영웅(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 제사음식 해드립니다 -
대명2동 1995-1번지 교대 앞 영선시장 내

백두정형외과
SINCE 1972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덕두(아오스동) 배성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경아세포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등인차안센터 건너편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반월당
코리아알트만
뉴영남
호텔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